

2015 평화통일마라톤 대회



(파주=연합뉴스) 4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원에서 열린 2015 평화통일마라톤 대회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언하고 있다.

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마라톤 동호인과 시민, 한미장병 등 9천7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. 2015.10.4 <<경기도북부청 제공>>

andphotodo@yna.co.kr

14.4 X 10.4 cm

문화일보

2015년 10월 05일 (월)
26면 기획

“개성공단·평양까지 달릴 날 오길”

■ 김희겸 부지사 6km 완주

■ “평화통일마라톤이 더 활성화돼 남북출입사무소(CIQ)를 넘어 개성공단, 평양까지도 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.”

4일 평화통일마라톤에서 격려사를 하고 6km 코스를 직접 뚫 김희겸 (사진)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“평화통일마라톤 코스를 통일대교에서 CIQ까지 연장한 지 벌써 3년이 됐다”며 “경기도는 남과 북이 하나가 돼 통일의 길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김 부지사는 “평화통일마라톤은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”



라며 “이번 대회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, 이산가족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”

고 말했다.

김 부지사는 “평화통일마라톤은 평소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민간인출입통제선(민통선) 구간을 달리고,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(DMZ)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마라톤 대회”라며 “남북 간 소통과 화합의 길로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”고 말했다.

파주=김성훈 기자

9.9 X 9.5 cm